

그늘 밑에 있으면서도 그들의 고마움을 모른다

플라타너스 이야기 (1)

어느덧 넓은 플라타너스 잎이 나뭇굴기 시작한다. 한여름의 사명을 끝내고 서서히 적멸로 향하고 있다. 어느 시인은 "9월이 오면, 플라타너스 넓은 잎들은 무성했던 여름 하영의 옷을 벗는다"고 했다. 시적 은유일망정 플라타너스가 들으면 참으로 억울할 노릇이다. 플라타너스는 무성한 잎사귀를 거느리며 여름 날 짙게 내리쬐는 햇살을 온몸으로 받아가듯 막았다. 학교 운동장 가에 서 있는 나에게 당신들이 문방구 칼로 내 몸에 상처를 내며 자신의 이름을 쓰고 누구를 사랑한다는 어설픈 문구를 써도 나는 신음소리 내지 않고 참았다. 당신들은 점령군 장교처럼 내 몸의 상처를 보며 희히덕거렸지만 나는 종군위안부처럼 말없이 당신들의 남긴 상처를 달고 살았다. '용철', '성구 (♡) 미선' 이라고 새긴 상처를 내 몸의 일부인양 진액을 뿜으며 참고 살았다. 내게 붙여진 이름도 억울하다. 나의 공식적인 한국 이름은 '버즘나무'다. 나는 1910년 한일합방(경술국치) 즈음 미국에서 선교사를 따라 한반도에 왔다.

플라타너스의 한국 이름은 '버즘나무'
겨울에는 털 옷 없이도 잘 버티 내고
대기오염에도 방독면 필요없는 나무
영양제 없이도 1년이면 2m 쏙 자라

'붉은 산'으로 대변되는 조선에 겁 없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다. 나무의 신분이라 귀화를 해도 주민등록증이 없다. 물 좋은 명산엔 기득권을 가진 소나무, 참나무가 딱하니 버티고 있었다. 내가 설 자리는 도시의 길가, 가로수라는 직분이 주어졌다. 그래도 나는 대만족이다. 누구는 운이 좋아 껌질이 희다고 자작(子爵)의 작위를 받고(자작나무), 어떤 새는 화려하다고 공작(孔雀)의 작위를 받았다(공작새). 왕이나 제후나 장군이 나 재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없단 말이야! 진시황이 죽고 2세 호해가 즉위하자 환관들이 득세하여 백성들은 살기가 더 어려워졌다. 진승이라는 농민은 국경 수비대로 징용되어 여장으로 가다가 큰비를 만나서 기일 안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되었다. 도착한다 하더라도 기일을 어겼으니 처형될 것이 분명했으므로 진승은 같이 가던 오공과 뜻을 같이 해 농민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외쳤다.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그들은 호송 관리를 죽이고 반란을 일으켰다. 진승과 오공은 장조라는 국가를 세우고 진승이 왕, 오공이 부왕이 되었다. 고려 때 만적은 최충현의 노비 출신으로 다른 노비들을 회유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왕후장상의 씨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진승도 부역자 출신으로 왕이 되었다. 우



청주 시내로 진입하기 전 만나는 플라타너스길은 우리나라 길 가운데서도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길이다.

리라고 못하겠는가.' 라고 했다.

'버즘나무'라는 이름은 또 뭐냐? 버짐은 백선균에 의하여 일어나는 피부병이다. 마른버짐, 진버짐 따위가 있는데 주로 얼굴에 생긴다. 버짐은 얼굴이 푸석푸석해서 가루를 뿌린 것 같다. 주로 겨울에 많이 생기는 질환이다. 원인은 불명확하나 강한 태양광선에 노출된 후 피부가 건조한 상태에서 발생한다. 겨울에는 자외선의 양과 강도는 높아지지만 얼굴에 공급되는 영양이 오히려 적어지기 때문이다. 얼굴에 버짐이 생기면 못 먹어서 그렇다고들 했다. 따지고 보면 얼굴에 충분한 영양공급이 되지 않고 있던 애기와 상통한다. 영양상태, 위생상태가 불량해서 생기는 후진국형 피부병이다. 플라타너스 껌질

이 버짐이 핀 것처럼 보인다고 버즘나무라는 이름을 달궈 붙여 버렸다. 나는 가로수다. 한국의 가로수가 아니라 세계적 가로수다. 나는 추위에 강하다. 겨울에 털옷을 입히지 않아도 잘 버틴다. 거름이 없는 도시의 척박한 땅에서도 나는 용감하게 잘 자란다. 무시무시한 도시의 대기오염에도 나는 방독면이 필요 없다. 거기가 자동차, 공장에서 뿜어내는 오염물질은 나는 거뜰히 마신다. 마셔서 정화한다. 도시에 횡행하는 오염물질을 스펀지가 흡수하듯 나의 조직에 흡착시킨다. 이걸 학자들은 대기 오염물질 흡수능력이 뛰어나다고 한다. 나는 영양제가 필요 없다. 건강보조식품을 먹지 않아도 1년에 2m씩 자란다. 메케한 공기를 마시며 누가 이런 도시녹화를 해낼 것인가.

내 아무리 생장력이 좋기로서니 한 해가 마무리 될 때면 사정없이 머리를 땡땡강 잘라버리는 처사는 또 뭐냐? 플라타너스 어원은 "넓다"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의 "플라니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플라타너스는 "하늘로부터 받은 은혜=천재"라는 나무 말이 있으며, 꽃말은 "용서와 휴식"이다. 소나무류와 은행나무는 약 2억5000만 년 전에 지구에 탄생했다. 그 뒤 1억년이 지나 속씨식물이 탄생하는데, 속씨식물에 속하는 플라타너스도 탄생 시점이 그 때 즈음이다. 백악기 때 이미 북반구의 상당 면적을 점유하였을 정도로 오래된 나무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도 플라타너스 그늘에서 제자들과 강론 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나무다.

뜨거운 햇볕이 쏟아지는 한여름 낮에 일터에서 막 돌아온 두 남자가 플라타너스 밑에서 흐르는 땀을 닦으며 이야기 하고 있다. "이렇게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나무는 이 세상에 아마 없을 거야." "맞아, 꾸불꾸불해서 목재로도 쓸 수 없고 열매도 먹을 수가 없고." 나무는 묵묵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시원하게 쉬고 있는 이 넉넉한 그늘은 바로 내가 만들고 있는 거야." 이우상 <소설가·동국대 문창과 겸임교수>



붓다 자비 봉사단 모집

국제불교지도자협회 봉사단에서는
살아 숨쉬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숨결따라 12인연과 사무량심을 실천하고자
30 여년 국내외에서 헌신과 봉사로 포교 일선에서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저희 불제자들은 평등한 마음으로 인간 방생, 중생 구제라는 사명으로 중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들이 즐거워 하는 것을 보며 저희들도 흐뭇한 마음으로 보람을 느끼곤 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는 후진국 극빈자들을 위해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마음과 행을 나눌 마음이 따뜻한 불자, 헌신과 봉사를 아는 불자들을 모집합니다. 모든 불자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총재 : 목탁 혜은 봉사단장 : 보덕화 김천대
붓다 자비 봉사단
02)733-5665. 010-3618-6061

